



발색도 높은 고품질 잉크개발 앞장 입자 작고 고르게 분사돼 노즐 막힘 없어

실제의 사진이미지를 프린터를 이용해 찍어내는 실사출력은 특수인쇄 분야 가운데 하나다.

물론 이미지뿐만 아니라 문자, 도형만으로 제작되는 광고물 또한 이 범주에 속하지만 실사출력은 PVC, PET, 인화지 등 다양한 소재위에 출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종이매체 위주의 오프셋 인쇄와 차별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주로 옥내외광고물 제작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분야기

이도 하다. 6월의 축제였던 월드컵은 실사출력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많은 이들이 월드컵에 동참하고 열광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대형 건물을 휘감은 포스터들이 가져다주는 화려하고 웅장한 분위기가 한 몫 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처럼 대형 광고물 제작에 있어 각광 받는 실사출력물은 장비와 소재에 의해 그 품질이 크게 좌우된다. 이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잉크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야 완벽한 출력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잉크에 대한 중요성은 높아지는 추세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실사출력분야는 수입 잉크가 시장을 장악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장비, 소재, 잉크에 이르기까지 국산화가 이뤄져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지금과 같이 실사연출 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잉크의 국산화 덕택이라고 입을 모은다. 29년간 실사출력용 잉크를 생산, 공급해온 신영테크놀로지도 이 분야가 발전하는데 공헌한 주인공 가운데 하나다.

국내 실사출력계의 성장과 맥을 같이 하다

경기 광주시 실촌면 삼리에 위치한 신영테크놀로지(대표 천영문, <http://shinyoungltd.koreasme.com>)는 1977년 7월 설립됐다.

신영사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이 회사는 같은 시기 인쇄용 카본잉크를 개발, 시판에 나서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어 이듬해인 1978년 2월에는 문구용 잉크를 출시하게 된다. 자체 잉크연구소를 설립해 기술개발에 매진하던 신영테크놀로지는 1993년 '복사지 피복조성물과 조성물 피복방법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며 첫 성과를 거뒀고, 1997년에는 '잉크젯 방식 인쇄용 잉크조성물 및 제조방법'과 '버블젯방식 인쇄용 잉크조성물 및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잇따라 획득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이 결과 1998년 2월에는 잉크젯잉크에 대한 판매를 본격적으로 개시했으며, 동년 5월에는 유럽과 남미에 데스크탑용 잉크 및 카트리지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1998년 10월 신영테크놀로지는 지금의 사명으로 변경하게 된다. 이듬해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우수 기업으로 지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어 2000년 5월에는 또 다시 '잉크카트리지의 잉크보충장치'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며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2002년에 이르러 신영테크놀로지는 해외 사인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자사 제품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는 한편, 세계 사인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2004년 7월에 경기도 광주 실촌면 곤지암으로 확장 이전한 신영테크놀로지는 동년 11월 포토샵과 대형프린트용



주요 생산, 납품실적

- 휴렛팩커드 프린터용 잉크 제조
- 엡손 프린터용 잉크 제조
- 캐논 프린터용 잉크 제조
- 렉스마크 프린터용 잉크 제조
- 실사출력 프린터용 잉크제조(흑색, 컬러, PIGMENT.DYE)
- 문구용 잉크(젤펜, 형광펜, 립펜 등)제조

보유설비현황

설비명	규격(가공능력)	수량
조성용기계	800I	3대
제타밀	25I	1대
다이노밀		3대
분산용 기계		1대

UV염료잉크 개발에 성공하는 등 실사출력용 잉크 제조업계를 리드해 나가는 중견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작은 입자 크기와 높은 발색도 구현이 장점

신영테크놀로지는 리필잉크킷트, 잉크 카트리지, 잉크젯 잉크 등 다양한 O.A 잉크를 생산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이 회사가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주력분야는 실사출력용 잉크로 한 달 평균 15~20톤 가량의 생산능력을 자랑한다.

주로 옥내외광공물 제작에 쓰이는 와이드포맷 프린터는 장비자체가 고가일 뿐만 아니라 매우 정밀하다. 특히 잉크가 분사되는 헤드의 노즐부분은 100여개가 넘는 작은 구멍으로 이뤄져 있는데 잉크가 균일하게 분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좋다. 입자 크기가 크고 거칠면 노즐이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잉크 생산과정에서 필터링을 중요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안료의 입자 크기도 작아야 하지만 필터링 과정에서 입자를 더욱 고르게 만드는 고도의 기술력도 요구된다. 신영테크놀로지가 생산하고 있는 실사출력용 잉크는 무엇보다 평균 입자크기가 작고, 고르게 분사되기 때문에 노즐의 막힘 현상이 거의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당연히 헤드 교체 횟수를 줄여 전체적으로 장비의 수명을 30~40%가량 연장시킬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한다.

“경쟁력은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

◎ 신영테크놀로지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 당연한 이야기지만 경쟁력은 제품의 품질에서 나온다. 잉크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체적인 시설과 노하우를 가지고 잉크 원액을 생산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원액을 사서 제조하는 것이다. 원액을 강조하는 이유는 잉크 가격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잉크는 원액말고도 8~9가지의 첨가물이 들어가지만 제조 단가의 50% 이상이 바로 원액이 차지한다. 가격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이를 직접 만들어 생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지만 잉크의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발 비용에 못지 않게 무수히 많은 시간과 자본이 소모된다. 폐사는 이미 프린터용 잉크젯 잉크, 실사출력용 잉크(pigment) 및 등사용잉크 원액(carbon black resin)을 자체 개발에 성공했지만, 이러한 점 때문에 후자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즉 품질 유지에 소모되는 비용을 우수한 고품질 원액 확보에 투자하는 것이다.

신영테크놀로지는 카본잉크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캐봇(CABOT) 사로부터 원액을 수입,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명성만큼 가격이 비싼 측면도 있지만 단언컨대, 품질면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보아온 어느 잉크 원액중에서도 최고다.

◎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겪고 있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면 인력과 자금 아니겠는가. 하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중소기업의 생명은 기술력이다. 이것이 바로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누가 도와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 자생력을 길러 나가야 한다.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이라면 그게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조금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씩 성과를 쌓아가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토대가 이뤄지고 난 뒤에 그때서야 부족한 1~2%를 비로소 정부차원의 정책과 지원자금 등으로 보완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실사출력용 잉크 업계가 봉착하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 과당경쟁으로 인한 가격파괴다. 이는 후발 업체들이 시장진입을 위해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카드가 가격이기 때문에 심화되는 측면이 있다. 지나친 가격 경쟁은 단순히 마진 축소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제품 개발에 대한 의지를 상실케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라면 당연히 제품의 품질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의욕을 떨어뜨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작고 고른 입자 못지않게 높은 발색도 또한 우수하다. 때문에 보다 선명한 출력물을 구현할 수 있다고. 물론 이와 같은 품질을 하루 아침에 얻어낸 것은 아니다. 신영테크놀로지는 정기적으로 한국원사직물연구원에 제품에 대한 시험, 분석을 의뢰해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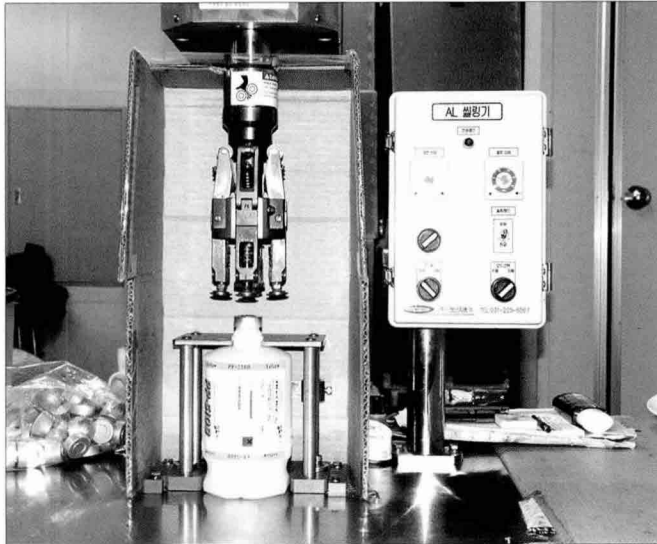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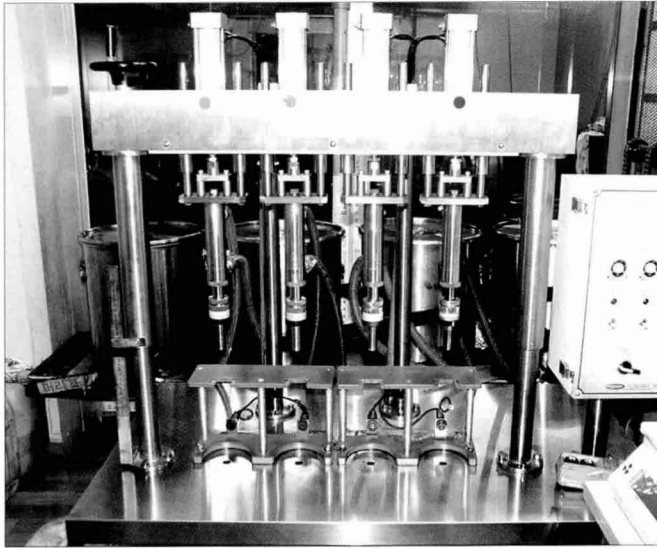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에 최선

신영테크놀로지는 지난 2004년 10월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았다. 산업재해예방과 생

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결과다.

클린사업장 제도는 50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 유해·위험 요인 제거를 위한 설비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집중 지원해 주는 제도다. 사업주가 제출한 이행계획서대로 개선이 완료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인정서가 수여된다. 신영테크놀로지는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무재해 사업장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개선 효과는 생산성과 기업이미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먼저 디지털 날염기 d·gen 시리즈로 유명한 실사출력 장비 제조업체 태일시스템과 단독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혁

- 1977년 7월 신영사 창립
- 1977년 7월 인쇄용 카본인크 개발 시판개시
- 1978년 2월 문구용 인크 시판개시
- 1989년 3월 신영인크연구소 설립
- 1993년 11월 복사지 피복조성물과 조성물 피복방법 특허획득
- 1997년 4월 잉크젯 방식 인쇄용 잉크조성물 및 제조방법 특허획득
- 1997년 8월 버블젯 방식 인쇄용 잉크조성물 및 제조방법 특허획득
- 1998년 2월 잉크젯인크 시판개시
- 1998년 5월 데스크탑용 인크 및 카트리지 수출개시
- 1998년 10월 신영테크놀로지로 사명 변경
- 1999년 8월 중소기업청 벤처평가 우수 기업 선정
- 2000년 3월 노바젯 인크 개발 시판
- 2000년 5월 잉크카트리지의 잉크보충장치 특허획득
- 2001년 11월 피에조 타입 실사인크 개발 시판
- 2002년 4월 미국 ISA국제사인엑스포 참가
- 2002년 10월 미국 SGIA쇼 참가
- 2003년 4월 미국 ISA 국제사인엑스포 참가
- 2003년 10월 미국 SGIA쇼 참가
- 2004년 4월 미국 ISA 국제사인엑스포 참가
- 2004년 6월 상해 국제광고기자재전 참가
- 2004년 7월 경기도 광주 실촌면 곤지암 공장확장
- 2004년 9월 동경 국제사인 및 디스플레이박람회 참가
- 2004년 10월 미국 SGIA쇼 참가
- 2004년 11월 UV염료인크 개발
- 2005년 3월 UV안료인크 상용화

안정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매출 규모면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나타났다. 2003년 8억원이었던 매출액은 2004년 14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어 2005년에는 무려 40억 원을 달성하는 등 가파른 성장 속도로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이는 작업환경 개선과 더불어 제품에 대한 시장의 인정을 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올해 안으로 서울 사무소 개설 목표

실사출력용 인크 이외에도 신영테크놀로지는 캐논, 엡손 등에 O.A용 인크도 공급하고 있다. 소량이긴 하지만 이탈리아, 벨기에 등 유럽과 남미지역에도 수출하고 있다. 특히

해외시장에서는 가격 대비 높은 발색도로 인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신영테크놀로지는 영업력과 고객 서비스 강화의 차원으로 올해 안에 서울 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이다. 현재 여의도를 중심으로 적합한 장소를 물색중이다. 사무소가 개설되면 충무로를 비롯한 서울지역 실사출력 업체에 대한 납기일이 단축돼 보다 빨리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서울 - 곤지암 공장간 장거리 이동에 따른 유류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